

정열의 세계로 가자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는 지젤 번천 브라질 출신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이 보사노바 음악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를 들으며 무대 한 가운데를 걷고 있다.



태극전사 입장 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개막식에서 기수 구본길(펜싱)을 선두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성화 점화 브라질 출신 마라토너 반데를레이 데 리마(오른쪽)가 성화 마지막 주자로 나서 점화하고 있다. 데 리마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선두로 달리다가 갑자기 코스에 난입한 관중 때문에 동메달로 밀려난 '비운의 선수'다.



삼바 속으로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개막식에서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리우올림픽 성대한 개막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개막식에서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리소파 · 식탁 대전

신상품 다량 입점 8월 25일까지



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